



고등교육과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김 성 일 | 강릉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많은 대학들은 그들의 미래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구상하기에 앞서 현재의 업적에 대하여 괴로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체로 대학들은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도 고등교육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듯하다. 주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대학 경험이 그들의 행동기준, 판단력, 개방적 태도, 사회적 책임감, 이해력의 개발 그리고 생활신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인으로서의 발달은 교양교육과 관련된다. 오래 전에 미국에서 대학의 영향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Jacob, 1965; Korn, 1969), 대학이 학생의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교육적 관심이 학생의 발달보다는 성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대학 성적은 사회에서의 성공과 다소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성공 여부를 성적으로만 측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학업성적은 지도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소위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이라고 하는 인문과학적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행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대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를 숙지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사회의 실용적 요청에 부응하여 기능적인 전문인을 육성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김병목, 2006). 이러한 결론은 지금까지 제시된 교양교육과 여러 교수방법의 효과에 관한 평가, 대학에서 장기간 가르쳐 본 교수들의 체험 그리고 학생들의 태도에 의한 것이다.

현재 대학생들의 지배적인 특성은 그들이 일상활동이나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치심도 없이 자기중심성을 드러내 보인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물질적 만족을 열망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준에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들은 차별이 없는 역동적인 사회에서 생활할 자세를 지니고 있으나,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 분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다수의 학생들이 도덕적인 덕성의 전통적

관례를 존중하지만, 그들은 그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관례에 얽매어 언제나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특히 어떤 잘못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때는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학업 부정행위(academic cheating)는 많은 대학에서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보통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무지하며,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하여 비교적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지만 소수만이 대학교육을 지적인 연마나 인격 도야를 위하여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수년 전에 전국의 대학생 6천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이현청, 1999), 학생들이 평소에 전공분야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10~20%)보다는 취업준비에 전념하는 경우(30% 이상)가 훨씬 많았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직업준비와 기술 및 경험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대하는 바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다양한 배경과 자유스러운 사고를 고려해 볼 때 현저히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전공분야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을 보이지도 않는다. 그들이 인문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 정책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력이 증대되거나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 예민해진다고 결론짓는 것도 부당하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의 전공을 알 수 있는 특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마찬가지로 결론이 사회과학계의 일반적인 효과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계통의 학생들이 세계문제에 대한 이해나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과학도들이 실제로 나타낸 가치관은 다른 계통의 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회과학을 배운 결과로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실질적인 참여를 더 많이 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고학년생들이 가치관의 심각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실현 가능한 타협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에서 볼 때, 저학년생들에 비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보다 동질적이고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대학생활을 통한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는 거의 없다. 변화는 학생들의 가치관의 핵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대학 졸업자들의 가치관은 다른 사람들과는 어떤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그들은 지위, 성취, 위신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대체로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을 중시하며, 비교적 야량이 있고, 편견이나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의 생각을 어떤 기준에 조화시키는 대학의 긍정적인 영향과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적절한 것들을 배제하는 미묘한 선택과정에 의한 것이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발전되는 듯한 일부 대학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수들, 학생들의 지성과 감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방법들이 있다. 학생들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그들이 호평하는 수업의 효과는 약평하는 것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롭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직업 목표를 정하도록 촉진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힘을 지닌 교수들은 그들의 가치관을 분명히 나타내며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온정적인 것 같다.

강의, 토론, 개별지도와 같은 여러 가지 지도방법이 학생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일부



대학의 인문계교육, 즉 교양교육의 특정한 내용이나 교수방법도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의 가치관은 대학에서 변화하지만 그들조차도 변화의 충동은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독특한 분위기, 강한 가치의식을 내보이는 사려 깊은 교수의 개인적 영향, 대학생활에서 때때로 겪는 가치문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학생들은 가치문제에 당면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끔 깊은 영향을 받는다.

교육의 과정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데에는 난점이 많다.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통상적인 활동으로는 수련이나 야영활동, 여러 가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현장학습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역할시연(role-playing)과 사례연구 또는 문제상황의 분석이 보다 관심을 끈다 해도 이와 같은 대리경험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어떤 유형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의 기대수준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기대하는가는 똑같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지적인 수범을 강조하거나 세속적인 가치 또는 상호 유대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학생들은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이처럼 대학의 지적, 도덕적, 문화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이전 사고방식에 맞지 않더라도 대학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동문들의 깊

은 신뢰가 형성된다. 따라서 졸업 후에도 오래 지속되고 다음 세대의 대학 선정에도 흔히 영향을 미치는 한 사회의 가치관이 형성된다.

어떤 학생들은 태도가 너무 견고하며, 인간관계에 대한 견해가 고정되고, 권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와 같은 학생들은 갈등과 불안정 상태에서는 위축된다. 그들은 바른 해답을 열망하면서도 창조적인 토론에서는 주춤거린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보다 자유스럽게 활동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자주성이 거의 없다. 학습내용과 지도방법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다소 표준화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학생들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그들의 비판적인 사고는 현저히 증가하며 좀 더 책임 있고 예리한 사회적 가치의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요점은 대학의 인문계교육, 즉 교양교육의 특정한 내용이나 교수방법도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

들의 가치관은 대학에서 변화하지만 그들조차도 변화의 충동은 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독특한 분위기, 강한 가치의식을 내보이는 사려 깊은 교수의 개인적 영향, 대학생활에서 때때로 겪는 가치문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새롭고, 흔히 갈등을 초래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중심에 스며들게 할 때에만 가치관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그것은 학생 자신이나 사회가 당연시하는 일상적인 경험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와 같은 경험은 교육과정 운영의 부산물로 야기되지는 않는다. 대학 사회와 학생의 개인적인 관계, 즉 온정과 이해심 및 상호 자극을 주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는 사제간의 개인적 대화 기회가 적다(이현청, 1999).

이러한 관계는 대부분이 규모가 큰 대학보다 작은 학교에서 훨씬 잘 조성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사제 간이나 학생 상호 간의 교류가 용이하고 공간 협소로 인한 심리적 압력도 적어 공격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적고, 익명에 의한 비행 발생이나 그 피해가 목살될 가능성이 감소되며, 학생들의 감수성도 예민하여 교사의 지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에서 중퇴자나 폭력 발생이 감소하고 성적이 향상되는 데 비해(Mulrine, 2002), 대규모 학교에서는 폭력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Astor et al., 1999).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가치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대규모화와 관료제로 인한 비인간화를 시정하기 위한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병목(2006). 대학의 존재 의의와 교양교육. *대학교육*, 139, 2-3.
- 이현청(1999). *한국의 대학생*. 서울: 원미사.
- Astor, R., Meyer, H., & Behre, W. (1999). Unowned places and tim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6, 3-42.
- Jacob, P. E. (1965). Does higher education influence student values? *Contemporary Readings in General Psychology*. 228-231.
- Korn, H. A. (1969). Higher education programs and student developmen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39(2), 155-171.
- Mulrine, A. (2002). Small and better. U. S. *News and World Report*, June 10, 38-40.

김성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캐나다 알버타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중앙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그리고 미국 커네티컷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였다. 부모의 수용과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고, 9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다.